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 pp.195~21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2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최 준 규 김 경 이 원 순 식
가톨릭대학교 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본 가톨릭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톨릭 고등교육의 정체성과 가톨릭대학교 교육기반의 통합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가톨릭교회의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의미를 탐구하였다. 둘째, 가톨릭 대학의 인적, 학제적 차원에 나타난 가톨릭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 가톨릭 대학 구성원의 가톨릭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와 가톨릭대학교의 명문화된 교육이념, 규정, 교육과정 등의 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론 연구와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가톨릭 정체성과 교육기반의 통합 전략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교육영역에서는 인간학·영성과정 운영 강화, 문화영성대학원의 강화, 종교·철학·신학 강좌의 강화, 가톨릭 특정 영역 교육, 가톨릭 정신과 통합한 과목 개발 등을 제안하였으며, 연구와 봉사 및 가톨릭공동체 형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과 이성을 통합하는 연구의 권장, 사회봉사의 확대, 수업과 봉사의 결합, 가톨릭 경험 기회의 확대, 가톨릭교육이념 수행자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안에서 가톨릭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가톨릭교육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 가톨릭 고등교육,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

* 본 연구는 강성남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Ⅰ. 문제의 제기

현재 가톨릭대학교 뿐 아니라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적어도 두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대학세계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경쟁 시스템에서 승리해야 하는 도전이며,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도전으로 대학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도전에 대해 각 대학은 대학의 기업화 경향을 위시해 혁신적인 정책과 조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두 번째 도전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이념과 목표를 충실히 검토함으로써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실제성과 생명력을 확보할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계 대학은 그 발전 방안 모색을 가톨릭 고등교육의 정체성 규명 작업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 고등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던져볼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가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톨릭대학교가 '가톨릭'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톨릭대학교가 학문적인 경쟁력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가톨릭의 교육이념을 보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대답하려는 노력은 우선 가톨릭대학이 기본적으로 그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에도 부합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톨릭계 대학들과 그들의 가톨릭적 전통에 대한 물음은 이전에도 제기되었다.[1]1990년대 들어서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교회의 심장부로부터"(*Ex Corde Ecclesiae*)를 통하여 가톨릭대학교에 있어서 가톨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논의를 재개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가톨릭 정체성은 일회적인 시도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기보다는 사회적, 법적, 제도적, 조직적 맥락에 따라서 개념화되어야 하며[2]가톨릭 정체성에 입각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의의, 교육이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맥뮤트리(McMutrie)는 1999년 미국의 200여개 가톨릭계 고등교육기관의 각 학교 단위에서 가톨릭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종합하여, 가톨릭 체성의 구성 요소를 추출해 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대학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시도

1) Langan, J.. S. J. ed., Cathoic Universities in Church and Society,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3; Hesburgh, T.ed., The Challenge and Promise of A Catholic Universi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McCormick, R. S. J., "What is a great Catholic university?", Reenhancing Religious Identity: Best Practice from Catholic Campuses, Wilcox, J. & King I. e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 Lavelle, M. S.J., "What is meant by a "Catholic" university?", Reenhancing Religious Identity: Best Practice from Catholic Campuses, Wilcox, J. & King I.e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

2) McMurtrie, B., "How Catholic should Catholic Colleges B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46. No.4, 1999;. Janosik, C. M. "Catholic higher education: by our ties must we be known", Current Issues in Higher Education, Vol. 20. No. 2. pp.41-55. 2000.

할 필요가 있으며, 정체성이 보다 가시적인 교육 이념과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톨릭대학교의 교육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학교의 인적, 학제적 기반은 교육 이념을 전달하고 실체화하는 현장이며,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정체성과 교육기반의 통합"은 가톨릭대학교의 발전을 보다 분명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실제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톨릭대학교에서 가톨릭 정체성을 탐색하는 개념적 연구는 충분치 못한 상태이며, 더욱이 가톨릭 대학이 가톨릭으로서의 특성을 인식·실천하는 교육기반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의 진정한 발전전략을 이론적이고 동시에 실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세 가지 하위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회의 공식문헌을 통하여 가톨릭대학교의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둘째, 가톨릭대학교의 교육 기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가톨릭 고등교육의 이념을 대학 전반에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전략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교육기반이란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육문화, 교육조직, 교육과정 등이다. 교육문화와 교육조직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교수, 행정가 및 행정직원, 학생)의 의식을 조사하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문헌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교육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원용하여, 가톨릭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반 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톨릭고등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 탐색을 마친 후,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조사 도구 개발(2006. 9~11), 예비조사실시 및 문항 수정(2006. 11), 본조사실시(2006. 12) 및 결과 분석(2006. 12)의 절차를 거쳐 실시되었다.

II. 가톨릭대학교의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입장을 담은 교회 문헌 가운데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과 '교회의 심장부로부터'(Ex Corde Ecclesiae)를 통해 교회의 가톨릭고등교육에 대한 인식과 고등교육의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고등교육에 대한 교회의 인식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3]을 통해 전반적인 그리스도교 교육의 목적과 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교회의

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심장부로 부터'(Ex Corde Ecclesiae) (1990. 8.1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1965,12,28), 이 문헌은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을 담고 있고, '교회의 심장부로부터'(Ex Corde Ecclesiae)도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입장과 관심은 선언 제10조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각 학문 영역별로 고유의 원칙, 고유의 방법,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대학은 조직적인 배려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신앙과 이성의 통합에 관한 내용으로 교회는 현대 사회의 고등교육에서의 "연구와 성과를 통해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유일한 진리에 합치하는 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인재 양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것으로 가톨릭계 대학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우수하게 되고 이로써 사회의 중요한 임무를 맡기에 합당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신앙의 증인이 되도록 교육" 해야 한다고 밝히다. 넷째, 학문적 수월성에 대한 것으로 교회는 "가톨릭계 대학이 세계 각지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촉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소수의 대학이라도 학문적으로 탁월"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기회에 대한 내용으로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못하더라도 장래가 유망한 학생들과 신생 국가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가톨릭 고등교육의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교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제한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가톨릭대학교의 정체성

1990년 '교회의 심장부로부터'(Ex Corde Ecclesiae: 이하 ECE라고 칭함)[4]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교황문헌은 가톨릭대학교와 그곳에서 종사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헌의 개정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알리스 갈린(Alice Galin)에 따르면, 1980년부터 바티칸 교육성은 가톨릭대학교의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을 시작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1부에 제시된 가톨릭대학교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가톨릭대학교 정체성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가톨릭대학교의 본질[6]

ECE 12항과 13항에는 가톨릭대학교가 가져야 할 학문공동체로서의 본질과 가톨릭대학으로서 갖는 본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즉 가톨릭대학교는 '하나의 대학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학문공동체이며,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가톨릭대학교는

---

4)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1부 정체와 사명, 2부 일반적 규범. 이 글에서는 각 부분을 나타낼 때 ECE I, ECE II 로 표시하였다.

5) A. Galin, American Catholic Higher Education: Essential Documents, 1967-1990. University of Notre Dame, 1992.

6) ECE I. 12항, 13항

'그리스도적 현존을 제도적 방식으로 확보'함으로써 가톨릭대학다움을 드러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가톨릭대학으로서의 전제조건은 '그리스도교적 영감을 지닌 대학 공동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인식에 기여',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존중', '하느님의 백성과 인류가족에게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봉사'로 요약된다.

2) 가톨릭대학교의 사명[7]

가톨릭계 대학들은 하나의 대학교로서 엄격한 학문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또 학생들의 필요와 그가 위치한 지역의 요구에 응답하면서 봉사적 책임을 수행한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책무인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은 가톨릭계 대학들 안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을 담고 있다. 즉 가톨릭대학교의 사명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영감과 빛이 반영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의 수행'으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학으로서의 사명이 '가톨릭' 이념과 함께 구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그리스도교 영감과 비전이 반영된 교육[8]

가톨릭대학교 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리의 동반자인 학생과 교수의 관계, 가톨릭계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다른 차원은 '학생과 교수들 간의 긴밀한 영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과 교수는 모두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gaudium de veritate*l)을 함께 나누는 진리의 동반자(*collegio*)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의 교육, 가톨릭계 대학이 수행하는 교육의 또 다른 차원은 지식과 진리, 이성과 신앙, 지성과 사랑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현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진리의 의미를 선포하는 봉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기본적 가치 없이는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와의 일치, 가톨릭계 대학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톨릭계 대학은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동참하고 특별히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2) 그리스도교 영감과 비전이 반영된 연구

문헌에서는 가톨릭계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 활동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로는 인식의 통합, 신앙과 이성의 대화, 도덕적 관심, 그리고 신학적 전망[9] 등이다.

---

7) Ibid., 12항, 14항

8) Ibid., 1항, 4항, 27항

9) Ibid., 15항.

첫째, 인식의 통합, 가톨릭계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은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진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염원들을 모아 고도의 수준에서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적 지식과 사고로부터 참다운 '지식의 분별력'을 회복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과목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고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데 통합되어야 한다.[10]

둘째, 신앙과 이성의 대화, 가톨릭계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정신은 각 학과목들이 각기 다른 내용과 방법론을 다루지만 그것들이 도덕적인 규범과 일치할 때엔 신앙과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신앙과 이성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11]

셋째, 도덕적 관심, 가톨릭계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파악되는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늘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학문적 인식과 양심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12]

넷째, 신학적 전망, 각 학문 활동에서 얻어진 인식과 결과들은 신학적 전망과 소양을 통해 이것들이 어떻게 인간과 사회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분별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13]

(3) 가톨릭대학교의 봉사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나아가 세계와 연결되며 대학과 그 구성원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된다. 가톨릭대학교는 고유한 본질과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봉사의 사명에 참여하여[14] 일반적인 대학이 갖는 봉사와는 다른 차원의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

문헌에서는 가톨릭대학교의 봉사 사명을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사목적 봉사, 문화와의 대화, 복음 선교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15]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교회를 위해 일하게 될 인재 양성,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와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 탐구 결과 제공, 현대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 활동(인간 생명의 품위,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촉진, 개인 및 사회생활의 질적 향상, 자연보호, 평화와 정치적 안정의 추구, 세계 자원의 보다 공평한 분배, 국내·국제 수준의 인간 공동체에 더 잘 봉사하게 될 새로운 경제적 및 정치적 질서 등),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발전을 통한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사회 정의의 촉진을 위한 봉사,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신생국가 발전의 촉

10) Ibid., 16항.

11) Ibid., 17항; 김웅태, 오늘날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역할, 『종교교육연구』 12, 2001, pp.191 재인용.

12) Ibid.,, 18항; ECE II 4조 3항.

13) Ibid.,, 19항; ECE II 4조 5항.

14) Ibid., 30항

15) Ibid, 31항, 32항, 34항, 35항, 36항, 37항

진, 학문간, 대학 간 연계 활동의 촉매 기능, 자신의 학문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역의 학문적, 문화적, 과학적 세계와 관련을 맺고 다양한 대학 간의 연계와 협력 등이다.

둘째, 사 목적 봉사로 이는 대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교회 사명의 일부로서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종교적 원리와 도덕적 원리를 그들의 학문 연구 및 비학문적 활동들과 통합시켜 신앙을 삶에 융합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학교의 활동"을 의미한다.[16] 이를 위해 제도적이고 공동체적으로 가톨릭적 가치관을 옹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타종교를 따르거나 무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간적 가치들을 존중하는 것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불의에 고통을 겪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17]

셋째, 문화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대학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는 문화의 발전과 전수 뿐 아니라 복음과 문화의 풍요로운 대화를 위한 일차적이며 특권적인 장소[18]로서 교회가 다양한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가치 가운데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봉사[19]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대 문화의 가치 가운데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인간 인격의 의미, 인간의 자유, 존엄성, 책임감, 초월적인 것에로 향한 개방성, 가정의 우선된 가치 존중, 그리스도교 사상과 현대 과학간의 대화를 위해 신앙과 이성의 관계 차원에서 인식론적 문제,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 등이다.[20]

넷째, 복음화(Evangelization)는 교회의 사명이므로 가톨릭대학교의 본질적 사명에 속한다. 가톨릭대학교의 근본적 학문 활동을 교회와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복음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가톨릭대학교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21]

3) 가톨릭대학교 공동체의 특성

가톨릭대학교가 갖는 공동체적 특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인간 공동체로서 가톨릭대학교는 진리에 대한 공동헌신, 인간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공동안목, 그리스도의 인격과 메시지로부터 연유하는 특성을 통해 공동체로서 결속된다. 이러한 영감의 결과는 자유와 사랑의 정신에 의해 활력을 얻어 상호존중, 진실한 대화, 개인 권리의 보호 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22]

둘째, 교수들은 학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향상해야 하며 그리스도교 신자 교수들은 신앙과 생활 간의, 직업적 능력과 그리스도교적 지혜 사이의 통합을 드러내야 하는 사

16) Ibid., 38항
17) Ibid., 40항
18) ECE Ⅰ.43항
19) Ibid., 43항
20) Ibid., 45항, 46항
21) Ibid., 49항
22) Ibid., 21항

명을 지닌다.[23]

셋째, 학생들은 전 생애에 걸친 진리와 의미의 추구, 그리스도교적 생활방식의 습득, 전문성 확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 신앙인으로서의 열정 등을 지녀야 한다.[24]

넷째, 대학의 경영진은 봉사의 지도직을 통해 대학과 공동체의 항구적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가들은 가톨릭대학교의 정체성과 생활을 위해 헌신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톨릭대학교의 평신도들은 "문화의 특별한 장소"인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 안에서 평신도로서의 헌신과 봉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5]

여섯째, 가톨릭교회가 타 종교, 종교가 없는 자들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지니듯 가톨릭대학교도 타종교와 종교가 없는 모든 이들을 수용하며 이들의 경험과 노력을 존중한다.[26]

일곱째, 가톨릭대학교는 가톨릭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표현으로 가톨릭계 대학 내에는 일정한 정도의 교수와 직원들이 가톨릭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편 비가톨릭인들도 가톨릭의 전통을 존중하고 가톨릭대학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27]

이러한 가톨릭대학교의 공동체적 특성과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가톨릭대학교가 사명을 구현하는 것을 촉진한다. 공동체적 특성과 사명 구현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교회와의 관계

모든 가톨릭대학교는 제도적 동질성에 근본이 되는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전체 교회와 일치를 드러내야 한다. 즉 가톨릭대학교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대해 제도적 충실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신앙과 도덕의 사항에 대해 행사되는 교회의 교도권을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가톨릭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비 가톨릭 구성원들은 대학교의 가톨릭적 특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학은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준다.[28]

---

23) Ibid., 22항

24) Ibid., 23항

25) Ibid., 25항

26) Ibid., 26항

27) ECE Ⅱ. 4조 4항

28) ECE Ⅰ. 27항

Ⅲ. 가톨릭대학교 정체성에 대한 구성원의 의식 조사

1.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재직 중인 교수, 직원, 학생이다. 교수의 경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각 연구실로 설문지를 배포 한 후 개별 반송을 통해 수합하였다. 직원의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실별로 배포 한 후 사무실 단위로 수합하여 회수하였다. 학생은 학년별로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명(%)

교수				직원				학생			
항목		인원	계	항목		인원	계	항목		인원	계
성별	남	16(45.7)	35 (100.0)	성별	남	27(50.0)	54 (100.0)	성별	남	224(31.6)	708 (100.0)
	여	19(54.3)			여	27(50.0)			여	484(68.4)	
재직년수	0~3년	7(20.6)	35 (100.0)	재직년수	0~3년	11(20.4)	54 (100.0)	학년	1학년	229(32.3)	708 (100.0)
	3~5년	8(23.5)			3~5년	9(16.7)			2학년	155(21.9)	
	5~8년	2(5.9)			5~8년	8(14.8)			3학년	178(25.1)	
	8~11년	4(11.8)			8~10년	2(3.7)			4학년	146(20.6)	
	11년이상	13(38.2)			10년 이상	24(44.4)					
종교	가톨릭	20(57.1)	35 (100.0)	종교	가톨릭	35(64.8)	54 (100.0)	종교	가톨릭	211(29.8)	708 (100.0)
	개신교	15(42.9)			개신교	7(13.0)			개신교	218(30.8)	
	불교	-			불교	1(1.9)			불교	36(5.1)	
	유교	-			유교	-			유교	1(0.1)	
	천도교	-			천도교	-			천도교	-	
	원불교	-			원불교	-			원불교	-	
	이슬람	-			이슬람	-			이슬람	-	
	무교	-			무교	11(20.4)			무교	230(32.5)	
	기타	-			기타	-			기타	12(1.7)	

2. 조사 결과

1) 가톨릭대학교 구성원의 사명에 대한 인식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교수의 경우 교육활동에서 '매우 그렇다' 17.1%, '그렇다' 31.4%로 반응하였다, 연구 활동에 있어 종교적 신념의 반영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이 37.1%로서 가장 높았다. 직원은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32.1%)이었다(표 2).

〈표 2〉 종교적 신념과 직무 수행 명(%)

직무수행 시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계
교수	교육활동	6(17.1)	11(31.4)	8(22.9)	9(25.7)	1(2.9)	35(100.0)
	연구활동	3(8.6)	7(20.0)	11(31.4)	13(37.1)	1(2.9)	35(100.0)
직 원		5(9.4)	12(22.6)	17(32.1)	16(30.2)	3(5.7)	53(100.0)

특히, 가톨릭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 대한 기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수 42.9%, 직원 40.7%, 학생 26.0%였다(표 3).

〈표 3〉 종교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인식 명(%)

종교와 교육은 무관해야 함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교 수	10(28.6)	15(42.9)	10(28.6)	35(100.0)
직 원	26(48.1)	22(40.7)	6(11.1)	54(100.0)
학 생	371(53.3)	181(26.0)	144(20.7)	696(100.0)

가톨릭대학교의 특성을 구현과 관련하여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 가톨릭 특성을 드러낼 때만 가톨릭대학교라 할 수 있다."라는 기술에 대해 교수는 '동의한다' 71.4%,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28.6%에 응답하고, 직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31.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0.2%, '동의하지 않는다'가 23.2%였다(표 4).

〈표 4〉 가톨릭특성의 구현 명(%)

가톨릭특성을 드러낼 때가 가톨릭대학이라 할 수 있음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 수	25(71.4)	10(28.6)	-	-	-	35(100.0)
직 원	7(13.0)	29(53.7)	17(31.5)	1(1.9)	-	54(100.0)
학 생	145(20.5)	321(45.4)	164(23.2)	72(10.2)	5(0.7)	707(100.0)

2) 그리스도교 영감과 비전이 반영된 사명 수행

가톨릭대학교 교육이념이 교육활동에 스며들어 있는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교수의 54.3%는 '그렇다', 직원의 48.1%는 '보통이다', 학생의 45.0%는 '보통이다'였다. 특히 봉사의 교육이념이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교수의 경우는 가장 많은 45.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직원과 학생은 '보통이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그 비율은 45.3%, 43.3%였다(표 5), (표 6).

〈표 5〉 교육이념의 반영 명(%)

우리대학의 교육에는 진리, 사랑, 봉사의 교육이념이 스며들어 있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교 수	1(2.9)	2(5.7)	12(34.3)	19(54.3)	1(2.9)	35(100.0)
직 원	2(3.7)	10(18.5)	26(48.1)	16(29.6)	-	54(100.0)
학 생	57(8.1)	162(22.9)	318(45.0)	155(21.9)	15(2.1)	707(100.0)

〈표 6〉 교육이념의 강조 명(%)

우리 대학의 교육에서는 봉사 정신을 중요시함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교 수	-	4(11.4)	12(34.3)	16(45.7)	3(8.6)	35(100.0)
직 원	1(1.9)	9(17.0)	24(45.3)	17(32.1)	2(3.8)	53(100.0)
학 생	25(3.5)	107(15.2)	305(43.3)	244(34.6)	24(3.4)	705(100.0)

'가톨릭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보다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교수의 17.1%, 직원의 18.5%, 학생의 18.7%는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표 7), 교수, 직원, 학생 모두 가톨릭교회 정신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바람직한 형태로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반영되어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수에게 강의 중 가톨릭에서

〈표 7〉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 명(%)

가톨릭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보다 더 개발되어야 함	동의 한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 수	6(17.1)	15(42.9)	11(31.4)	3(8.6)	-	35(100.0)
직 원	10(18.5)	22(40.7)	17(31.5)	5(9.3)	-	54(100.0)
학 생	132(18.7)	241(34.1)	245(34.7)	77(10.9)	11(1.6)	706(100.0)

특별히 강조되는 가치들을 다루는 강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28.5%는 '사회와 인류의 봉사'를 다루는 강좌가 1개 이상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2.9%는 별도로 다루는 강좌는 없지만 관련 있는 주제가 있는 경우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45.7%가 '없다'고 응답했다(표 8).

〈표 8〉 교수가 가톨릭의 가치를 다루는 강좌의 수 명(%)

가톨릭의 가치를 다루는 강좌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관련 있을 때 다룸	기타	계
사회와 인류의 봉사	17(48.6)	3(8.6)	3(8.6)	2(5.7)	2(5.7)	8(22.9)	-	35(100.0)
강의 분야의 윤리적 문제	16(45.7)	5(14.3)	2(5.7)	2(5.7)	1(2.9)	9(25.7)	-	35(100.0)

다음으로, 교회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는 인식의 통합에 대한 모색, 신앙과 이성에 대한 대화, 도덕적 관심, 신학적 전망 등이 포함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사 항목(교수들의 연구 촉진 동기)에서 '진리 자체에 대한 추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5.7%였으며 '신앙의 실천'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가톨릭대학교 사명 중 봉사와 관련해 '우리 대학이 교육의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있는가'에 대해 교수는 51.5%가, 직원은 9.4%, 학생은 18.4%만이 '(매우)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교직원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교수의 25.7%, 직원의 11.3%가 활발하다고 인식했다. 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37.3%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목적 봉사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이 교수와 직원들의 신앙과 교육·연구 활동, 신앙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관련을 맺도록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수의 42.9%는 '보통이다', 40.0%는 '아니다'라고 응답하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각각 8.6%, 5.7%였다. 직원의 응답에서는 40.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37.0%는 '보통이다', 11.1%는 '그렇다', 11.1%는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표 9).

〈표 9〉 가톨릭대학교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명(%)

가톨릭대학교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교육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교 수	1(2.9)	5(14.3)	10(28.6)	17(48.6)	2(5.7)	35(100.0)
	직 원	2(3.8)	18(34.0)	28(52.8)	5(9.4)	-	53(100.0)
	학 생	77(10.9)	223(31.6)	276(39.1)	120(17.0)	10(1.4)	706(100.0)
활발한 봉사활동	교 수	-	7(20.0)	16(45.7)	9(25.7)	3(8.6)	35(100.0)
	직 원	1(1.9)	24(45.3)	22(41.5)	6(11.3)	-	53(100.0)
	학 생	12(1.7)	111(15.7)	295(41.7)	264(37.3)	25(3.5)	707(100.0)
신앙과 직무 수행의 연계를 위한 대학의 지원	교 수	1(2.9)	14(40.0)	15(42.9)	3(8.6)	2(5.7)	35(100.0)
	직 원	6(11.1)	22(40.7)	20(37.0)	6(11.1)	-	54(100.0)

3) 가톨릭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공동체

(1) 공동체 결속의 매개

구성원들이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공동체결속의 중요한 매개이므로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물었다. 교수의 경우 '잘 알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6.7%였고, '알고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33.3%, '알지 못한다.'는 43.3%였다. 직원의 경우는 '잘 알고 동의한다.'가 84.9%이고 '알고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5.7%였다. 학생의 응답은 '잘 알고 동의한다.'가 44.6%, '알고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가 14.7%, '알지 못한다.'가 26.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였다(표 10).

〈표 10〉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한 인식 명(%)

교육이념과 목적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잘 알고 동의한다	알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 수	2(6.7)	10(33.3)	13(43.3)	-	-	30(100.0)
직 원	45(84.9)	3(5.7)	3(5.7)	2(3.8)	-	53(100.0)
학 생	315(44.6)	104(14.7)	186(26.3)	83(11.8)	18(2.5)	706(100.0)

공동체로서의 결속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위해 우선 재직(학)대학이 '가톨릭대학이라는데 자부심을 갖는지'를 질문한 결과 교수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61.8%였고, 직원의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46.3%, 학생은 25%였다.

〈표 11〉 가톨릭 공동체 결속의 매개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가톨릭대학교'에 대한 자부심	교 수	-	2(5.9)	11(32.4)	16(47.1)	5(14.7)	34(100.0)
	직 원	2(3.7)	8(14.8)	19(35.2)	21(38.9)	4(7.4)	54(100.0)
	학 생	64(9.1)	153(21.7)	319(45.2)	140(19.8)	30(4.2)	706(100.0)
의식과 행사에 참여 시 소속감	교 수	-	5(14.7)	8(23.5)	20(58.8)	1(2.9)	34(100.0)
	직 원	2(3.7)	6(11.1)	22(40.7)	21(38.9)	3(5.6)	54(100.0)
	학 생	46(6.5)	126(17.9)	322(45.7)	180(25.5)	31(4.4)	705(100.0)
대학의 의식과 행사에 드러나는 가톨릭 특성	교 수	-	2(5.7)	4(11.4)	26(74.3)	3(8.6)	35(100.0)
	직 원	1(1.9)	4(7.4)	8(14.8)	35(64.8)	6(11.1)	54(100.0)
	학 생	23(3.3)	75(10.6)	194(27.5)	333(47.2)	81(11.5)	706(100.0)
대학의 건물과 조형물에 드러나는 가톨릭 특성	교 수	-	7(20.0)	10(28.6)	17(48.6)	1(2.9)	35(100.0)
	직 원	9(17.0)	12(22.6)	18(34.0)	11(20.8)	3(5.7)	53(100.0)
	학 생	50(7.1)	130(18.4)	211(29.9)	255(36.2)	59(8.4)	705(100.0)

'대학의 의식과 행사에 참여 할 때 가톨릭대학교의 일원임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수의 61.7%, 직원의 44.5%, 학생의 29.9%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교수의 14.7%, 직원의 14.8%, 학생의 24.4%가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대학의 가톨릭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의식과 행사 그리고 건물과 조형물에 가톨릭 특성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진술 '우리대학의 의식과 행사에는 가톨릭 특성이 드러난다.'에 교수의 74.3%, 직원의 64.8%, 학생의 47.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건물과 조형물에서 가톨릭적 특성이 드러난다.'에 대해 교수의 51.5%, 직원의 26.5%, 학생의 44.6%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고 있고, 직원의 39.6%, 학생의 25.5%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다(표 11).

(2) 공동체로서 특성

가톨릭공동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느끼는 대학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교수의 68.6%, 직원의 35.2%, 학생의 47.5%가, '우리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의 태도에서 가톨릭대학이라는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 교수의 53%, 직원의 11.1%, 학생의 2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우리 대학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도움을 준다.'의 진술문에 대해서는 교수의 41.2%와 직원의 49.0%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학생의 40.9%는 '보통이다', 35.1%는 '그렇지 않다'

〈표 12〉 가톨릭 공동체로서 특성에 대한 인식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우호적인 대학 분위기	교 수	1(2.9)	2(5.7)	8(22.9)	19(54.3)	5(14.3)	35(100.0)
	직 원	2(3.7)	7(13.0)	26(48.1)	15(27.8)	4(7.4)	54(100.0)
	학 생	18(2.6)	69(9.8)	281(40.0)	293(41.7)	41(5.8)	702(10.0)
구성원의 태도에서 가톨릭대학이라는 느낌을 받음	교 수	1(2.9)	6(17.6)	9(26.5)	16(47.1)	2(5.9)	34(100.0)
	직 원	4(7.4)	16(29.6)	28(51.9)	6(11.1)	-	54(100.0)
	학 생	71(10.1)	205(29.1)	272(38.6)	138(19.6)	18(2.6)	704(100.0)
대학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적절한 도움을 줌	교 수	2(5.9)	14(41.2)	11(32.4)	6(17.6)	1(2.9)	34(100.0)
	직 원	12(23.5)	25(49.0)	11(21.6)	3(5.9)	-	51(100.0)
	학 생	81(11.5)	248(35.1)	289(40.9)	83(11.8)	5(0.7)	706(100.0)

라고 응답하였다(표 12).

(3) 역할기대

가톨릭대학교 이념 구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기대에 관련하여, "가톨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본교의 교육이념을 존중하고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진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교수의 94.3%와 직원의 70.4%, 학생의 12.5%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하였고, 직원의 24.1%, 학생의 52.4%는 '부분적으로 동의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경우 28.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13).

〈표 13〉 구성원의 교육이념 준수에 대한 의견 명(%)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 수	33(94.3)	-	-	2(5.7)	-	35(100.0)
직 원	38(70.4)	13(24.1)	2(3.7)	1(1.9)	-	54(100.0)
학 생	88(12.5)	370(52.4)	203(28.8)	44(6.2)	1(0.1)	706(100.0)

교수와 직원에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톨릭대학교의 교수와 직원임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교수의 53%, 직원의 46.3%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톨릭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교수의 53.3%는 '그렇다' 22.9%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직원의 43.3%는 '그렇다', 31.5%는 '보통이다', 13.0%

〈표 14〉 역할기대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직무 수행 시 '가톨릭'대학교 교직원임을 의식하고 있음	교 수	2(5.9)	4(11.8)	10(29.4)	16(47.1)	2(5.9)	34(100.0)
	직 원	1(1.9)	10(18.5)	18(33.3)	20(37.0)	5(9.3)	54(100.0)
대학에 대한 소속감	교 수	-	-	8(22.9)	19(54.3)	8(22.9)	35(100.0)
	직 원	3(5.6)	2(3.7)	17(31.5)	25(46.3)	7(13.0)	53(100.0)
	학 생	33(4.7)	73(10.4)	277(39.4)	272(38.7)	48(6.8)	703(100.0)

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경우 38.7%는 '그렇다', 39.4%는 '보통이다' 4.7%와 10.4%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표 14).

(4) 제도

가톨릭대학교의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 가운데 가톨릭 신자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교수의 경우 '동의한다.'가 11.4%이고,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28.6%, '동의하지 않는다.'는 57.1%, '잘 모르겠다.'가 2.9%였다. 직원의 응답에서는 '동의한다.'가 11.1%,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가 24.1%, '동의하지 않는다.'가 61.1%였다(표 15).

〈표 15〉 가톨릭 신자 비율의 적절한 유지에 대한 의견 명(%)

가톨릭 정체성을 위한 신자 비율 유지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 수	4(11.4)	10(28.6)	20(57.1)	1(2.9)	-	35(100.0)
직 원	6(11.1)	13(24.1)	33(61.1)	2(3.7)	-	54(100.0)

한편, 가톨릭대학교의 개인과 공동체가 진정한 가톨릭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직원 개발 프로그램에 가톨릭대학교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 교수는 '동의한다.'가 8.6%,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가 54.3%, '동의하지 않는다.'가 37.1%였다. 직원의 경우 '동의한다.'는 13.0%,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27.8%, '동의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은 55.6%였다(표 16).

〈표 16〉 가톨릭 특성을 반영한 교수 및 교직원 개발 명(%)

가톨릭 특성을 포함한 교수개발/ 교직원 개발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 수	3(8.6)	19(54.3)	13(37.1)	-	-	35(100.0)
직 원	7(13.0)	15(27.8)	30(55.6)	2(3.7)	-	54(100.0)

4) 교회와의 일치

먼저,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은 가톨릭교회 정신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의 진술문에 대해 교수의 48.6%, 직원의 55.6%, 학생의 52.0%가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교수의 42.9%, 직원의 20.4%, 학생의 7.2%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표 17).

〈표 17〉 가톨릭대학교 교육의 교회와 일치에 대한 의견 명(%)

교회 정신에 따른 가톨릭대학교 교육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 수	15(42.9)	17(48.6)	3(8.6)	-	-	35(100.0)
직 원	11(20.4)	30(55.6)	10(18.5)	1(1.9)	2(3.7)	54(100.0)
학 생	51(7.2)	367(52.0)	248(35.1)	35(5.0)	5(0.7)	706(100.0)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에서의 연구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해야 한다."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로 교수의 45.7%, 직원의 43.4%, 학생의 43.1%가 이에 응답하였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교수의 11.4%, 직원 7.5%, 학생 4.0%였다.(표 18) 한편, 비가톨릭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관련, 교수의 65.2%, 직원의 64.9%, 학생의 58.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표 19).

〈표 18〉 가톨릭대학교 연구의 교회와 일치에 대한 의견 명(%)

응답자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교 수	4(11.4)	16(45.7)	13(37.1)	1(2.9)	1(2.9)	35(100.0)
직 원	4(7.5)	23(43.4)	20(37.7)	6(11.3)	-	53(100.0)
학 생	28(4.0)	305(43.1)	314(44.4)	60(8.5)	-	707(00.0)

〈표 19〉 비 가톨릭 구성원에 대한 존중 명(%)

교직원과 학생들의 다양한 종교 활동을 존중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교 수		3(8.6)	5(14.3)	22(62.9)	5(14.3)	35(100.0)
직 원	1(1.9)	5(9.3)	13(24.1)	30(55.6)	5(9.3)	54(100.0)
학 생	12(1.7)	43(6.1)	240(34.1)	343(48.7)	66(9.4)	704(100.0)

Ⅳ. 가톨릭대학교 제도 분석

1. 교육이념 분석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이념이 지닌 모호성은 고등교육기관의 특징으로도 지적되나, 대학 경영에 있어 구성원간의 이념과 방법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구성원의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학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육이념의 제도적 분석이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교육이념에서 가톨릭특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는 첫째, 교육이념에 가톨릭특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둘째, 교육이념의 내용이 가톨릭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사명을 충실히 담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은 '인간존중'과 '진리 · 사랑 · 봉사'이다. 그러나 이는 가톨릭대학만이 아니라 일반의 대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념 표현이다. 다음으로, 교육이념에서 제시된 가톨릭대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진리의 보편성, 인간 생명의 존중, 학문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전문인 양성과 이성과 신앙의 종합을 통한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끈기를 연마하는 사회인, 인류와 세계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성과 신앙의 종합을 통한 사회 공동선에 기여는 가톨릭대학교만의 표현으로서 이는 앞서 교회문헌에서 특히 강조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2. 규정분석

가톨릭 특성이 대학 규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규정 가운데 가톨릭 특성 구현과 관련하여 명문화 된 부분은 교수 인사에서 임용과 업적평가, 직원 인사에서 직원근무 평정 항목, 그리고 학생 행정에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항목, 종교교육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었다. 이는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대학교 구성원의 일정 비율을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와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가톨릭 특성을

띠기 위해 마련된 내용이며, 진리. 사랑. 봉사의 정신을 사회와 전 세계에 실현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측면으로 볼 수 있다.

3. 가톨릭 정체성이 반영된 제도 운영 현황

1) 교육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된 공식적 교육과정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현행 가톨릭대학교 교육과정에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육과정으로 명시된 과목들은 학부의 인간학교육원과 문화영성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이 있다. 인간학교육원에서 개설되는 인간학과 영성의 교육과정은 교양필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간과 현대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랑나누기는 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를 촉진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강의로서 봉사를 강조하는 교육이념이 제도화 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수 대학원으로 개설되고 있는 문화영성대학원은 "가톨릭 전통과 사상을 바탕으로 문화와 영성의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폭넓게 접근함으로써 현대 세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 양성"[29]을 목적으로 종교문화영성, 교육문화영성, 예술문화영성, 대중문화영성, 생명문화영성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연구

가톨릭대학교의 부속연구소 가운데는 교회가 가톨릭대학교를 통해 '인식과 연구의 근본 가치를 존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교회의 성장과 그리스도교 문화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이에 속하는 부속연구소에는 가톨릭여성연구원, 성음악연구소, 한국가톨릭철학회, 인간학연구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톨릭여성연구원은 가톨릭대학교 협력지정 연구소로서, '가톨릭정신으로 현 시대에 가장 초점이 되는 성, 생명, 가정 등에 관한 연구와 학술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그리고 교회 내의 전문가 양성과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을 목적'[30]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간학연구원은 가톨릭대학교 부속연구기관으로서 인간학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간학' 및 종교과정 교과목의 교육방법론과 교재개발의 학술적 지원은 물론 인간에 관한 철학적, 종교적 연구, 학제 간 공동 연구, 교내외 유관기관들과의 학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29) http://gcs. catholic.ac.kr/sub_011.htm

30) http://songsim.catholic.ac.kr/~cwrik/intro.html

3) 봉사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에는 교내 구성원을 위한 교목실의 사목적 활동과 국제 봉사단 활동, 지역사회 복지관 위탁 운영, 평생교육원 강좌 운영 등이 있다.

교목실은 교내 구성원을 위한 사목적 봉사와 다양한 종교 행사를 통해 가톨릭문화와 전통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매일 미사, 전례력에 따른 미사, 교직원 피정, 다양한 가톨릭 학생 활동 지원과 종교 활동 그리고 국제 봉사단 활동을 통해 봉사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관과 평생교육기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예가 된다. 지역사회 복지와 저소득층과 아동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고리울청소년 복지관, 고강복지관, 한라 종합복지관, 춘의종합복지관, 원미자활후견기관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가톨릭 강좌를 포함하여 전문가 양성과정, 학위 인정 과정, 직업기술 교육 등을 개설하여 교육기회를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에 일조하고 있다.

4) 가톨릭 공동체성 확보

가톨릭대학교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개강미사, 시무·종무미사, 부활 전례에 따른 부활 휴가, 입학제도 가운데 수도자 특별전형, 고령자 특별 전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도자와 고령자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는 가톨릭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입학제도로서 수도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톨릭 공동체성 확보와 더불어 교회에 봉사라는 사명실천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특별전형 또한 청년기에 고등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학습자를 위해 제공되는 입학제도로서 소외된 자에 대한 기회 제공으로 우리 대학의 이념을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V. 가톨릭 대학교를 위한 실천적 방안

가톨릭 대학들이 현재 당면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관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가톨릭 대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면서 가톨릭대학교의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인간학교육원의 인간학과 영성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톨릭 가치를 접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연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문화영성대학원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이러한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으로 향후 일반인의 관심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적 한계로 참여할 수 없는 보다 많은 잠재적 교육 참여자를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위 및 비학위 과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교, 철학, 신학 과목들을 강화해서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은 종교적 현상, 실존, 신학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단순히 과거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고전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톨릭 대학은 가톨릭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특정 교육 영역을 개발하도록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대학에서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중세연구를 한다거나 국내외 철학과 신학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는 고전 라틴어, 교부학, 세계의 가톨릭교회에 관한 과목들을 개설함으로써 가톨릭신앙이 지배적이었던 그들 문화의 민속학과 지리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음악학과 내에는 종교음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교회 음악의 산실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섯째, 종교적이거나 가톨릭 사상을 직접 반영하는 학과목 외에 가톨릭대학에서는 보다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교회적 관심을 학과목 안에 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는 개발, 기아, 교육문제와 같은 휴머니즘적 사랑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될 수 있다. 정치학과에서는 평화, 인종차별, 종교, 정치에 관한 학문들은 보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학과목과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가톨릭대학의 심리학과는 인지심리학, 임상심리 같은 현시대의 심리학의 주류를 따라갈 뿐 아니라 발달심리와 가난, 가족 그리고 윤리문제 등을 다루면서 이 분야에서 명실 공히 수위의 자리를 고수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톨릭 정신과 전통, 혹은 종교적인 주제들을 통합한 학과목을 제공하고 또 교수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전공 분야 안에서 가톨릭 정신을 반영한 강좌를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톨릭정신과 통합한 강좌 개발 지원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와 봉사 영역과 관련하여 교회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해 '인식의 통합에 대한 모색', '신앙과 이성의 대화', '도덕적 관심', '신학적 전망' 등이 포함되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자칫 학문 연구의 자유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이성과 신앙의 통합을 모색하는 길은 관련 주제 연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교내 연구비 지원 영역에 '신앙과 이성의 통합'이라는 접근을 제시하고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가톨릭 정신을 반영한 연구가 수행 될 수 있도록 '연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내봉사 영역에 있어서는 현재 거행하는 교직원을 위한 사목적 봉사의 강화와 참여의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랑나누기 과정, 국제 봉사단 활동 등의 활동들이 더욱

촉진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과 함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 뿐 아니라 직원과 교수들도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봉사라는 교육이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과목 안에서 봉사의 의미를 반영하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이라는 교수방법의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착 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참고문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Ex Corde Ecclesiae)」 (1990. 8. 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교황청 문화 위원회, 「교회와 대학문화」 (1990. 1.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CIC)』 (1983. 1. 25)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그리스도교 교육(Gravissimum Educationis: GE)」 (1965, 12. 28)

김웅태, 「오늘날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역할」, 『종교교육연구』 12, 2001, pp.277-304.

Langan, J. S. J. ed., 『Cathoic Universities in Church and Society』 Washington, D.C.: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3.

Galin, A. (ed.), *American Catholic Higher Education: Essential Documents,1967-1990,*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1992.

Hesburgh, T. ed., 『The Challenge and Promise of A Catholic University』, Notre Dame: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Janosik, C. M. (2000). 「Catholic higher education: by our ties must we be known」, *『Current Issues in Higher Education』,* Vol. 20. No. 2. pp.41-55.

Lavelle, M. S. J., 「What is meant by a "Catholic" university?」, 『Reenhancing Religious Identity: Best Practice from Catholic Campuses』, Wilcox, J. & King I.ed.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

McCormick, R. S. J., 「What is a great Catholic university?」, 『Reenhancing Religious Identity: Best Practice from Catholic Campuses』, Wilcox, J. & King I.ed.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

McMurtrie, B., 「How Catholic should Catholic Colleges B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46. No. 4, 1999.

원고접수: 2008년 1월 24일 1차심사: 2월 3일 게재승인일: 2월 11일

연구자 소개: 최준규
① 전공: 종교학, 교육학/ 소속: 가톨릭대학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가톨릭교육, 대학행정, 국제교육
③ 주요논저: <가톨릭학교교사의 영성>, <가톨릭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대학의 국제화전략>, <가톨릭의 사제양성 원리와 실제>
④ E-mail: runnerchoi@catholic.ac.kr

연구자 소개: 김경이
① 전공: 교육행정 / 소속: 가톨릭대학교
② 관심영역 : 가톨릭학교조직과 문화, 종교교육, 교사교육
③ 주요논저 : <가톨릭학교 교육이념에 대한 연구>, <장학 개념 적용을 통한 교수학습센터 발전에 대한 연구>, <교사론>, <가톨릭학교 종교교육현황>
④ 이메일주소: clara90@catholic.ac.kr

연구자 소개: 원순식
① 전공 : 교육행정 / 소속: 가톨릭대학교
② 관심영역 : 학교조직, 장학, 교사교육
③ 주요논저 :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에 대한 조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공저)
④ 이메일 주소 :wss423@catholic.ac.kr

Abstract

Strategies for Integration the Catholic Characters into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Catholic

Jun Gui Choi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yungYee Kim
ormer Catholic University Korea

Soon Sik We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searching for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the Korea. The perspectives of the article based on the Catholic education. That means, the integration of the mission of the Catholic higher education, curriculum,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fulfill the purpose of Catholic University of the Korea.

To get the purpose we asked the followings: Firstly, what is the mission of the catholic higher education? What is the identity of the Catholic higher education? To get the answers, we searched the Catholic Church document about Catholic Higher Education.

Second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the Korea? What are the perspectives of the members who are faculty, staff and student in the CUK, about the mission, identity and characteristic of the CUK? To get the empirical evidences, we took the way of survey and analysis of the rules. The objects of the survey are the faculty, staff and student in the CUK. The materials of the analysis are the rules about personnel administration, offering curriculum and programs and mission statement.

Thirdly, we proposed the strategies for the integration of the mission and educational system.

According to the documents, the main role of the Catholic Higher Education is the realization of the Christian education. To fulfill these, Following things are required to the Catholic Higher Education; integration of the reason and faith in the research and teaching, keep the scholastic excellence, enlargement of the social service, service learning, catholic experience, making up the merit system.

Key words : Catholic Higher Education. Identity of the Catholic Higher Education